

제1754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9월 6일 (음력 7월 14일) 수요일

전남 國道 '찔끔공사'

평균 33개월工期 연장...수도권보다 1년 더 걸려

경실련 자료 분석

전남지역 주요 국도 건설 사업의 공기(工期)가 정부예산의 '찔끔 배정'에 따라 크게 지연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기지연과 함께 공사비 또한 대폭 들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발표한 '20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 건설공사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북지역 15개 국도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공기보다 평균적으로 60%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삼서, 영광~해보 국도 확포장 등 일부 도로 공사는 계획 공기를 두 배 이상 넘는 '거북이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남북 지역 도로 건설과 확포장 공사의 평균 공사연장기간이 수도권 국도의 경우보다 평균 1년 가까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전부 SOC예산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사

실토 나타났다.

더욱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기조로 그렇지 않아도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은 낙후에서 벗어날 물류·관광인프라마저 제때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부지역 국도가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뒤늦게 준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 도로포장율은 68.3%로 경남(66.6%)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규 SOC 예산 예산 방침은 전남의 도로 여건 개선을 더욱 옥죄고 있다.

김영후 전남 도로교통과장은 "도로망이 대부분 구축된 수도권은 체증 개선을 위한 확장이 많지만 전남은 신설과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공기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더욱이 도로 건설 예산이 20% 가량 축소된 여파로 수도권 등에 비해 크게 낙후된 전남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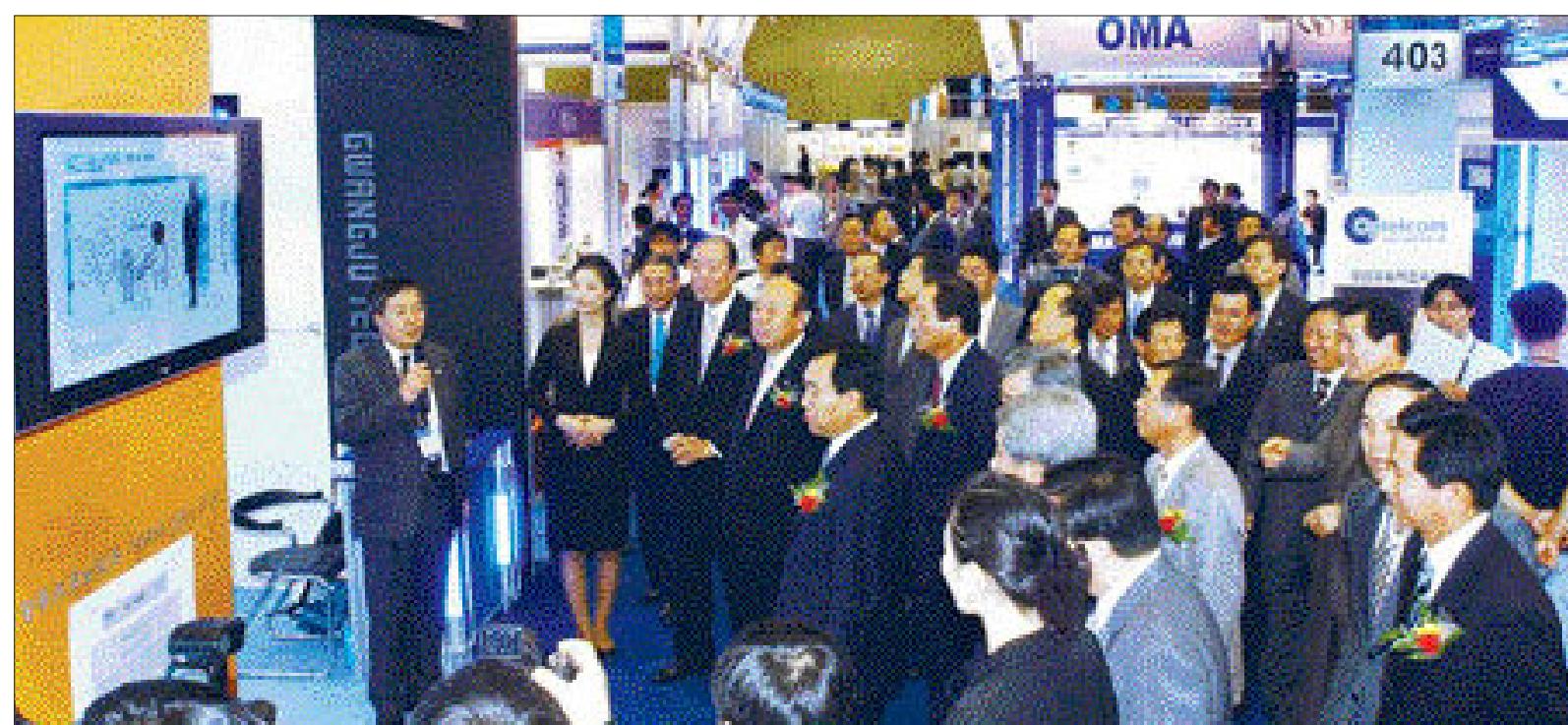
지방국토관리청 관내 6개 도로의 공기 연장은 평균 1년9개월(661일), 당초 공기 대비 연장 비율은 37.1%에 그쳤다.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전남·부지역 국도가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뒤늦게 준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 도로포장율은 68.3%로 경남(66.6%)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규 SOC 예산 예산 방침은 전남의 도로 여건 개선을 더욱 옥죄고 있다.

김영후 전남 도로교통과장은 "도로망이 대부분 구축된 수도권은 체증 개선을 위한 확장이 많지만 전남은 신설과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공기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더욱이 도로 건설 예산이 20% 가량 축소된 여파로 수도권 등에 비해 크게 낙후된 전남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



국제 광산업전시회 개막

국내 유일의 광산업 전문 전시회인 '2006 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식이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 이기태 광산업진흥회장,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3개국 59개업체가 참가하며,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화보 9면 / 위치경기자 jwvi@

김정일 위원장 訪中 임박

특별열차 신의주 머물러... "이미 중국 방문중" 주장도

중국 방문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신의주에서 발견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단동에 거주하는 한 한국 교민도 "같은 날 저녁 신의주역 일대를 포함한 시 전체가 보통 때와 다르게 활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며 "하지만 4일 밤에는 평소처럼 전깃불이 거의 없는 어두컴컴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아직 중국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도 이날 "현재 그 방면의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설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하지만 중국 단동(丹東)의 한 소식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신의주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동에 거주하는 한 한국 교민도 "같은 날 저녁 신의주역 일대를 포함한 시 전체가 보통 때와 다르게 활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며 "하지만 4일 밤에는 평소처럼 전깃불이 거의 없는 어두컴컴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미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아직 중국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도 이날 "현재 그 방면의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설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인도 카슈미르 지방 카펫 장인

광주비엔날레 지상전

인도 라퀴브 쇼의 '반추를 위한 습작'



라퀴브 쇼(Raqib Shaw)는 힌두문화에 대한 화려한 카펫문양을 결합한 이 작품을 통해 환상적인 신화의 세계와 회화적 완성미를 보여준다.

그의 회풍은 풍부한 색채와 화려한 장식으로 압축된다.

지난 1974년 인도에서 출생, 런던 세인트 마틴스 대학을 졸업한 뒤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기자 penfoot@

檢, 유진룡 前 차관 출국금지

문광부 공무원 6~7명도...상품권 비리 혐의 포착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전격

출국금지했다. 〈관련기사 4면〉 검찰 관계자는 5일 "어젯밤 11시쯤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본인에게도 통보했다. 조사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품권 도입 및 고시 개정 과정에 관여했던 문화부 현직 공무원 6~7명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 및 정책적 오류 등의 혐의를 입수됨에 따라 유전 차관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전 차관과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은 물론 경품용 상품권제도 배경도 짚증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20여개 아케이드 게임들이 등급 분류를 받은 과정을 분석하면서 부실 심의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온 틈틈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